

KATECH 이슈브리핑

⊙ 주간 이슈 리뷰

- Nissan-Foxconn, 日 Oppama 공장 전기차 생산 협력 논의
- 中 '27년까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10만 개 구축 목표

⊙ 이슈포커스

- EU 집행위원회, 저탄소 수소·연료 인증 방법 규칙안 채택

◆ Nissan-Foxconn, 日 Oppama 공장 전기차 생산 협력 논의

- Nissan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폐쇄 검토 중이던 Yokosuka 市 Oppama 공장*에서 Foxconn과 전기차 생산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
- * 연간 생산능력은 24만 대에 달하나, 판매 부진으로 '24년 가동률은 40% 수준으로 저조
- 이번 협력이 성사되면 Nissan은 공장 가동률 제고를 통해 비용 절감, 공장 및 고용을 유지하고, Foxconn은 해당 공장을 거점으로 자사 전기차를 생산하며 일본 내 완성차업체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
- * 양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, Foxconn에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
- * 일각에서는 Foxconn 판매 유통망 부족, Nissan 향후 EV 라인업 확대 계획 등 양사 협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, 구조조정 및 공장 폐쇄가 더 적절하다는 시각도 존재
- * Foxconn은 '24.12월 Renault가 매각 검토 중이던 Nissan 지분에 관심을 표명. 이후, 日 정부 개입으로 Honda-Nissan 경영 통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으나 '25.2월 무산된 바 있음

Nikkei Asia('25.7.6.) <https://bit.ly/3Ua0lfv>

Nikkei Asia('25.7.8.) <https://bit.ly/3GC81K0>

Nikkei Xtech('25.7.9.) <https://bit.ly/4kyRuo5>

Foxconn은 車 제조로의 진출을 위해 Nissan의 지분 또는 생산 기반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. 그러나 日 정부는 과거 Foxconn이 인수한 Sharp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었고 과거의 명성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됨

◆ 中 '27년까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10만 개 구축 목표

-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国家发展改革委)는 '27년까지 中 전역에 10만 개 이상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, 각 전기차 제조사가 보유한 충전소를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
- * 중국 내 초고속 충전소의 대부분은 자사 차량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타사 차량은 이용이 제한적임. 일부 브랜드는 타사 차량에 개방하고 있으나, 멤버십 혜택 등 차별적 운영이 지속됨
- *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 정부에 주요 연휴 기간 이용률이 40% 초과하는 충전소를 우선 업그레이드 대상으로 지정하고,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소 설치 계획 수립을 권고
- * 물류 및 중대형 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한 초고속 충전을 우선시하여 운송 부문 전동화에도 대응할 계획

TECH IN ASIA('25.7.8.) <https://bit.ly/4lBpUHZ>

electrive('25.7.8.) <https://bit.ly/4nNkw66>

electrek('25.7.8.) <https://bit.ly/44NMWEn>

중국전문가포럼('25.7.11.) <https://bit.ly/3UgBr3e>

중국 정부는 전기차 확산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응해, 브랜드 전용 충전소의 개방을 유도하며 충전 생태계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섬

